

自主國防과 國防費(I)

— 國防費의 適正水準을 中心으로 —

(Optimal Expenditure for National Self Defence)

合 同 參 謀 本 部
戰 略 企 劃 局

I. 問題의 提起

「國家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當面하고 있는 至上課題는, 經濟發展과 國家安保를 同時에 追求하면서 國力을 培養하여 平和統一의 基盤을 造成하는데 있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經濟發展과 國家安保에 各各 制限된 國家資源을 어떻게 配分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난 十餘年間 우리는 經濟成長을 加速化하기 위하여, 經濟建設에 全力을 傾注해야 했기 때문에, 1963年 以來 國防費에는 每年 GNP의 4% 水準을 配分하여 왔다. GNP의 4% 水準도 事實上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水準의 國防費가 60萬 大軍을 維持하는데 適正한 것이었으며 또한 對北 傀 軍事力 均衡을 維持하는데 充分한 것이었는가 하면 決코 그렇지 않다. 그동안 우리는 國防費 負擔의 거의 大部分을 美國의 援助에 依存해 왔으며, 또한 美軍의 韓國駐屯이 對北 傀 軍事力 均衡을 維持하고 戰爭을 抑止하는데 크게 寄與해 왔음은 公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狀況에 直面하고 있다. Nixon Doctrine이 採擇된 以後, 美國의 無償軍事援助는 急激히 減縮되어 왔으며 그나마도 特別한 狀況變更이 없는限 앞으로 二, 三年內에 終結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1960年代에 우리의 經濟發展을 可能케 하

는데 적지않게 寄與했던 美國에 依한 國防費 支援 및 直接軍援이 終結되었다는 事實은, 우리에게 國防費 負擔을 增加하든가 아니면 軍事力 規模를 減縮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兩者擇一의 選擇을 強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美國의 海外介入 減縮政策에 따라 이미 1970年代 初에 駐韓美軍의 一部가 減縮되었고, 나머지도 앞으로 早晚間에 段階的으로 減縮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이 거의 確實視되고 있다. 이는 對北 傀 軍事力 均衡의 維持를 위하여 最少限 駐韓美軍이 韓國軍의 戰力上의 缺陷部分을 補完해 주고 있던 만큼의 軍事力增強이 不可避하게 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여기서 強調되어야 할 것은 對北 傀 軍事力 均衡의 確保 및 維持 問題이다. 敵과 對等하거나 이를 凌駕하는 軍事力의 確保 維持 없이는 戰爭을 抑止할 수도 없고, 또한 侵略을 擊退할 수도 없다.

充分한 軍事力의 뒷받침 없이는 休戰狀態를 持續할 수도 없고 平和를 維持할 수도 없다. 韓半島에서의 休戰狀態는 休戰協定이나 強大國의 保障에 依하여 維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韓國兩國의 軍事力에 依하여 維持되고 있다는 冷嚴한 現實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더구나 南北協商을 위해서나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도 「힘의 뒷받침」이 絕對인 要件이라는 것은 最近의 印度支那事態가 이를 雄辯으로 立證하고 있다. 勿論 여기서 軍事力이라 함은 裝備·物資等 有形的인 힘뿐만 아니라 精神戰力이나 士氣等 無形的

인 要素도 같이 包含하는 概念이다.

이러한 現實에 當面하여 우리는 이미 1960 年代 末부터 「自主國防」의 旗지를 높이 들고 各分野에서 相當한 進展을 이룩하여 왔다. 廣義의 自主國防의 概念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自衛의 精神의 바탕위에 「내 나라는 내힘으로 지킨다」는 自力防衛의 뜻이 아울러 包含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自主國防의 要件으로서

- (1) 軍事戰略이 우리의 國防目標 施行手段이 되도록 自主의인 것이어야 하며
- (2) 우리의 軍事戰略을 具現하기 위하여 所要되는 軍事力을 自身の 힘으로 建設하고 自力으로 維持할 수 있어야 하며
- (3) 우리의 意志에 따라, 必要時 軍事力을 任意 使用할 수 있는 作戰指揮權이 있어야 한다는 세가지로 要約된다.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概念이 決코 國際의인 軍事協力の 必要性을 排除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意味에서는 오늘날의 國防은 國際의인 協力を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否認해서는 안될 것이다.

自主國防을 위하여 가장 重要한 要件은 亦是 위 三要素中 軍事力을 自體의 힘으로 建設・維持하는 問題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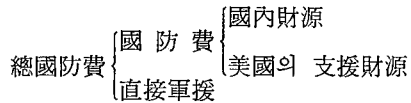
우리가 當面한 現實은 이미 自意半 他意半으로 過去와는 달리 防衛負擔의 거의 大部分을 우리 自體가 擔當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그러면 어느 程度의 國防費 負擔이 適正한 水準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가 問題인데, 바로 自主國防을 위하여 果然 國防費는 어느 程度 支出되어야 할 것인가를 檢討하고자 하는 것이 이 論文의 目的이다. 問題解決을 위한 接近方法으로서 國防費에 있어서의 南北韓의 狀況을 國際的인 趨勢와 關聯하여 比較・檢討하고 要望되는 適正水準을 提示하고자 한다.

여기서 引用하는 各種 統計는 安保上 公開된 資料를 爲主로 하였으며 提示되는 意見은 政府機關의 承認된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II. 國防費 趨勢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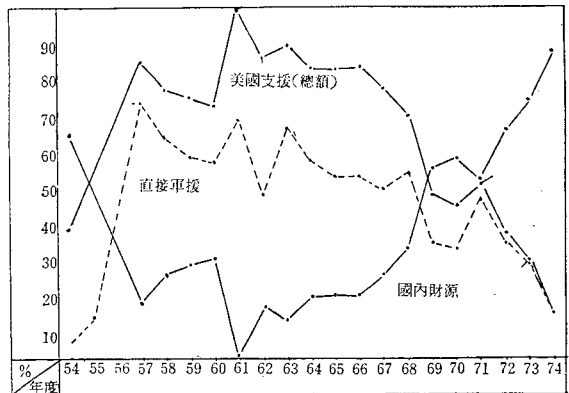
1. 國防費 絕對值의 趨勢

우리나라의 國防費는 모두 國防部 豫算속에 網羅되어 있으며, 自體資源과 直接軍援으로 構成되어 있다. 通常의인 用語로서의 「國防費」란 自體資源 國防費를 말하며 이는 純粹한 國內資源과 美國의 支援財源—代充資金 및 派越 援資金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따라서 概念의 混同을 防止하기 爲하여 直接軍援까지를 합친 國防費를 「總國防費」로 부르기로 한다.



우선 지난 20 年間의 總國防費의 財源構成比를 概觀하면 圖表 1에서 보는바와 같이, 直接軍援과 代充資金을 包含한 美國의 支援財源이 차지하는 比率이 休戰後 急激히 增加되어 1961 年度에는 99.8%라는 最高比率을 나타냈으나, 1968 年度부터는 70%線 以下로 下降하기 始作하여 1974 年에는 10%線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反面에 國內財源이 차지하는 比率은 1950 年代 後半期에 25%水準이었으며 1961 年에는 0.2%, 1960 年代 初半期에는 10% 乃至 17% 線이었으나 1967 年부디 擴大하기 始作하여 1969 年에는 50% 線을 넘어서서 1974 年에는 無慮 90%線에 이르고 있다.¹⁾

國防費 財源構成比(1954~1974)¹⁾



1) 每年 國防部에서 發行하는 「國防豫算統計」에 土台를 두고 整理한 統計이다.

1960年代 末부터 國內財源이 차지하는 比率이 急激히 增大하여, 國防費面에서 本래 「軍援에 依한 國防의 時代」로 부터 自體負擔에 依存하는 自主國防의 時代」로 急激히 轉換되고 있을 을 보여 주고 있다.

國防費의 絕對值를 살펴봄에 있어서, 豫算關係 統計는 經常價 또는 不變價 表示의 與否 또한 適用年度 等に 留意하지 않으면 안되며, 年度別 또는 國家別로 比較하기 爲하여는 같은 基準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傀와의 比較를 하는데는 그들의 資料가 지니는 特殊性 때문에 많은 어려운 問題點이 存在하게 된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比較的 妥當性있게 判斷된 것으로 看做되는 美國務省 軍備管理 및 軍縮局이 最近 發表한 統計를 主로 引用하였고,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DE 1963—1973, U.S. Gov't Printing Office, 1975) 1972年度 不變價 表示 統計로 相互 比較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서 使用하는 貨幣 單位는 美國의 弗貨를 基準으로 하였다.

1963년부터 1972年까지 10年間 우리나라의 國防費(直接 軍援 除外)는 「1972年 不變價」로 總 27億 6千萬弗에 相當한다. 1963年度에는 1億 8千萬弗 未滿이던 規模가 每年 增加趨勢를 나타내어 1972年度에는 4億 5千萬弗 規模로 約 2.5倍 增大되었다. 그러나 이 國防費中에서 純粹 國內財源이 占하는 比率은 1967年까지는 30~45%線에 不過했으나, 漸次 急激히 增加하여 1973年度에는 98.4%를 차지했으며, 1974년부터는 100%를 차지하고 있다.

〈圖表 2〉 南北韓 年度別 軍事費, GNP, 人口 및 兵力統計

年 度	軍事費(\$百萬)		GNP(\$百萬)		軍事費 GNP (%)	人 口 (百萬名)	1人當 軍事費 (\$不變)	1人當 GNP (\$不變)	兵 力 (千名)	軍事費 兵 力 (\$不變)	
	經常價	不變價	經常價	不變價							
韓 國	1963	157.61	179.48	3,757.5	4,279.0	4.19	27.100	6.62	158	627	286
	1964	128.76	165.20	3,620.7	4,645.5	3.56	27.800	5.94	167	600	275
	1965	111.99	183.00	3,016.1	4,928.6	3.71	28.500	6.42	173	604	303
	1966	149.83	217.25	3,819.8	5,538.5	3.92	29.200	7.44	190	572	380
	1967	184.87	233.14	4,733.5	5,969.6	3.91	29.900	7.80	200	612	381
	1968	234.53	272.65	5,783.6	6,723.6	4.06	30.500	8.94	220	620	440
	1969	293.34	314.33	7,217.4	7,733.8	4.06	31,200	10.07	248	620	507
	1970	331.19	331.51	8,333.8	8,342.0	3.97	31,800	10.42	262	645	514
	1971	401.20	406.00	8,999.4	9,107.1	4.46	32,400	12.53	281	638	636
	1972	454.51	454.51	9,741.3	9,741.3	4.67	33,100	13.73	294	635	716
1973	478.09	443.86	12,314.3	11,436.3	3.88	33,800	13.13	338	634	700	
GROWTH RATE (PCT ANN)			11.6		10.3	1.2	2.2	9.2	7.9	.6	10.9
北 傀	1963	280.00	382.00	2,300.0	3,100.0	12.17	11.500	33.20	273	352	1,085
	1964	300.00	403.00	2,500.0	3,400.0	12.00	11.800	34.13	284	362	1,112
	1965	350.00	461.00	2,500.0	3,300.0	14.00	12.100	38.13	272	378	1,220
	1966	350.00	449.00	2,900.0	3,700.0	12.07	12.400	36.20	300	383	1,172
	1967	470.00	584.00	3,000.0	3,700.0	15.67	13.000	44.93	287	383	1,525
	1968	610.00	729.00	3,500.0	4,200.0	17.43	13.400	54.39	312	410	1,778
	1969	615.00	701.00	4,000.0	4,600.0	15.37	13.800	50.79	330	410	1,710
	1970	700.00	756.00	4,500.0	4,900.0	15.56	14.200	53.26	342	438	1,727
	1971	750.00	775.00	4,900.0	5,100.0	15.31	14.600	53.10	347	450	1,723
	1972	500.00	500.00	5,300.0	5,300.0	9.43	15,100	33.11	351	460	1,087
1973	625.00	592.00	N.A.	N.A.	N.A.	15.500	38.18	N.A.	470	1,259	
GROWTH RATE (PCT ANN)			5.4		6.5	.5	3.1	2.3	3.2	3.0	2.4

이는 1971년부터 代充資金의 轉入이 終結되고 1973년에는 派越支援資金이 終結된 것과 關聯이 있다.²⁾

따라서 지난 10年間 27.6億弗의 國防費中 純粹 國內財源이 차지하는 額數는 18.7億弗 規模로서 全體의 2/3에 相當한다.

北傀는 같은 期間中 57億 4千萬弗을 軍事費에 使用했으며, 韓國보다 約 30億弗이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即, 北傀는 韓國에 比해 年平均 約 3億弗씩을 더 國防費에 使用한 셈이 된다.

現役兵力 1名當 國防費 水準을 보면, 韓國의 境遇 對象 期間中 60萬名 乃至 63萬名の 兵力을 維持해 오므로서 1名當 年 300弗 乃至 700弗 水準이 된다.³⁾ 北傀의 境遇는 35萬名으로 부터 47萬名 水準으로 兵力이 漸增되어 1名當 年 1,000弗 乃至 1,700弗이 되며 韓國에 比해 年平均 3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거나 給與 水準이 높은 先進國들은 論外로 하고 우리와 與件이 비슷한 開發 途上國을 平均해 볼때 現役兵力 1人當 國防費는 지난 10年間의 경우 年間 1,700弗 乃至 2,500弗로 나타나고 있다.⁴⁾

1972年의 境遇 全世界 136個國中에서 現役 兵力 1人當 國防費가 1,000弗 未滿인 나라는 21個國인데 韓國은 最上位로 부터 15番째에 該當한다. 이들 21個國中 二, 三個國을 除外하면 모두가 1人當 GNP가 200弗 未滿의 弱少國들이며, 印度支那半島 4個國을 除外하면 모두 다 軍事的 威脅이 그리 問題가 되지않는 나라들이다.

直接軍援을 包含하는 總 國防費야 말로 軍事的 所要를 充足시킬 수 있는 眞正한 意味에서의 國防費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의 境遇, 美國의 對韓 直接軍援은 休戰以後 1956년부터 本格的으로 開始되었으며, 1963년부터 1972년까지의 10年間 總 25億 8,100萬弗(72不變價)로 나타나고 있다.⁵⁾

따라서 總 國防費는 앞에서 살펴 본 自體資源 國防費를 합쳐 總 53億弗 規模가 되는 셈

〈圖表 3〉

兵力 1人當 國防費：最下位 15個國(1972)

順位	國家名	國防費 / 兵力(\$)
1	NEPAL	178
2	AFGHANISTAN	187
3	PANAMA	286
4	LAOS	331
5	越南	468
6	HAITI	483
7	越盟	520
8	SOMALIA	531
9	CAMBODIA	556
10	MAURITIUS	559
11	BURMA	618
12	MAURITANLA	626
13	LIBERIA	633
14	CONGO	657
15	韓國	716

- 2) 美公法 第480號에 依한 代充資金의 國防費 轉入은 1953년에 始作되어 1971년에 終結되었다. 한편 國庫의 越南派兵과 關聯하여 1967년부터 1973년까지의 期間中에는 美國의 派越支學費가 國防費에 包含되어 있으며, 그 規模는 大略 年間 國防費의 3~8%를 占하고 있다. (但, 1973년에는 1.6%)
- 3) 美國의 對韓 直接軍援까지를 包含하여 計算한다면 지난 10年間(63~72) 年平均 900弗 水準이 된다.
- 4) USACDA,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de 1963—1973, Washington, D.C.
- 5) 韓國側 資料에 依하면, 72年度 不變價로 환산하여 22億弗 規模가 되며, 美側 資料보다 3.8億弗이 적은 數值로 나타난다. 이는 韓國側 資料가 當該年度 實受領值에 基準을 두는 反面에 美側은 FY年度別 實配定額에 基準을 두면서 起因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軍援資金이 配定된 後 그것이 裝備로 購買되어 韓國에 到着할때까지는 最高 3年の LEAD TIME이 所要된다. 한편 美側 統計에는 直接軍援뿐만 아니라,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裝備販賣額도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年度別 軍援額은 아래와 같다.

(單位：\$ 百萬)

年度	韓國側 資料 經常價	韓國側 資料 不變價	美國側 資料 72不變價
1963	160.4	182.7	99.5
1964	124.4	159.5	83.2
1965	125.1	205.1	137.1
1966	170.7	247.4	194.9
1967	168.4	212.4	269.6
1968	261.8	304.4	385.9
1969	146.5	157.0	489.0
1970	154.8	155.0	162.1
1971	345.8	350.0	235.5
1972	219.0	219.0	143.9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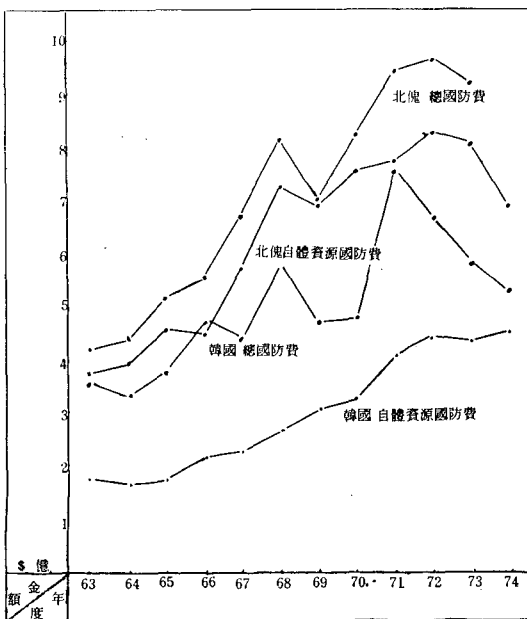
北傀의 境遇, 같은 期間中 中共과 蘇聯으로 부터 받은 軍援은 7億 9,510萬弗로 나타나고 있으며,⁶⁾ 따라서 總 國防費는 65億弗 規模가 되는 셈이다. 亦是 北傀가 軍援을 습친 總 國防費에 있어서도 韓國보다 12億弗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南北韓 國防費 比較(1963~72)
1972 不變價

區 分	國 防 費	軍 援	計
韓 國	2,757.1	2,581.0	5,338.1
北 傀	5,740	795.1	6,535.1

南北韓의 年度別 總 國防費 趨勢는 圖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南北韓의 隔差가 漸次 더 벌어지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Nixon 美國 大統領의 中共 訪問과 南北韓의 「七·四 共同聲明」으로 象徵되는 解氷의 분위기가 高潮되었던 1962年을 期하여 多少 下降趨勢를 나타내고 있다.⁷⁾

〈圖表 4〉 南北韓 國防費 趨勢
(72 不變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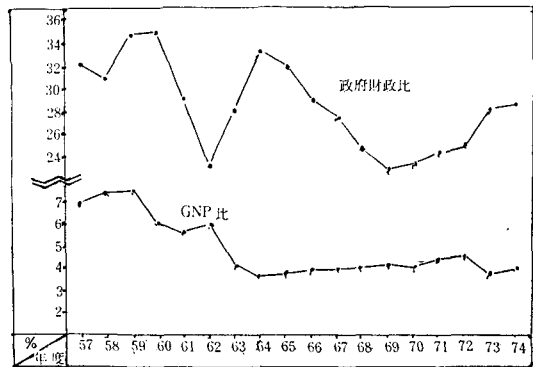
2. 國防費 負擔率

한 나라의 可用 資源中 國防을 爲하여 使用 가능한 資源이 어느 程度인가 하는 것은, 通常 「一年間의 一國이 生産하는 모든 最終財貨를 貨幣價値로 나타내는 國民總生産 또는 GNP」에 對한 比率로 表示된다. GNP는 一年間에 國家가 處分하는 財貨와 用役의 總量을 市場價格으로 表現한 것이며, 基本的인 國力을 나타내는데 有用한 指標로 認定되고 있다.⁸⁾

우리나라의 GNP는 「1972年 不變價」로 第一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始作되던 1962年에 40億弗 水準이던 것이 1973年에는 120億弗 水準으로 約 3倍의 實質成長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같은 期間中 國民 1人當 GNP도 150弗 水準으로부터 340弗 水準으로 約 2.3倍의 實質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圖表 2 參照)

GNP中 國防費가 차지하는 比率는 休戰後 1962年까지는 8% 乃至 6%線이 維持되어 왔으나, 第一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始作된後 1963년부터 1974年까지 繼續 4%線으로 固定

〈圖表 5〉 國防費의 GNP 및 政府財政比



6) 對象期間中 北傀는 蘇聯으로 부터 6億弗 規模, 中共으로 부터 近 2億弗 規模의 軍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年度別 分布는 圖表 4 參照.

7) 이 統計中 1972年以後의 北傀軍事費는 政府側 判斷資料를 適用하였으며, 1973年度의 deflator는 美側判斷에 依據 105(1972=100)로 算出하였다. 한便 이 圖表에서 1974年度의 韓國 國防費는 deflator 160(1972=100)을 適用했다. 註(5)에서 提示한 統計도 亦是 같은 基準을 適用했다.

8) Hith, C.J. and McKean, R.N., The Economics of Defense in The Nuclear Age, New York, 1966, p. 31

維持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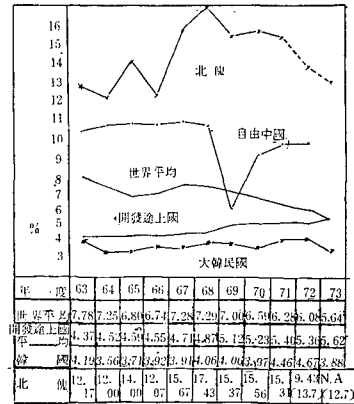
政府財政에 對하여 國防費가 차지하는 比率은 休戰後 1965年까지, 期間中 1962年과 1963年을 例外로 하면, 繼續 35% 乃至 30%線을 維持해 오다가 1966년부터 30%線以下로 줄어든 後 1974年까지 25%線이 維持되어 왔다.

北傀는 우리의 境遇와 다른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共產諸國이 그러하듯이 北傀는 GNP 概念을 使用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推計에 依存할 수 밖에 없으나 推計도 그 方法과 機關에 따라 相當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特히 1967年度 以後의 統計에 있어서 그 差異는 더욱 두드러 진다.⁹⁾

北傀에게 가장 有利하게 判斷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美國務省 軍備管理 및 軍縮局의 統計를 適用하면, 1963年度 北傀의 GNP는 約 31 億弗(72不變價)이고 1972년에는 53 億弗 水準으로 評價되며, 1972年度의 境遇 韓國의 約 1/2 水準에 相當한다. 그러나 GNP 中 軍事費가 차지하는 比率은 1963년부터 1972年까지의 期間中 最高 17.5%에서 最下 9.5%에 이르기까지 大端히 높은 比率을 나타내는 한便, 甚한 起伏現象을 나타내고 있어 韓國의 4%線의 境遇와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¹⁰⁾

이는 北傀가 蘇聯 經濟援助의 一時 中斷과 關聯하여 1962年末 「自力防衛」를 決定하고 所謂 四大軍事路線을 내세워 軍事力 增強에 總力量을 集中 傾注해 온데 起因한다고 본다. 여

〈圖表 6〉 軍事費 / GNP (%)



기서 留意하게 되는 것은 韓國의 境遇, 美國의 援助를 繼續받아 들이는 것과 關聯하여 豫算 均衡의 維持에 置重한 것으로 보이는 反面에 北傀의 境遇는 戰略的 所要 第一主義가 維持되어 온 것으로 判斷된다.

世界各國의 境遇와 比較하면, 對象期間中 GNP에 對한 國防費比가 世界平均의 境遇 約 7%線이며, 開發途上國의 境遇는 平均 5%線이나 每年 上昇趨勢를 나타내어 1973年의 境遇는 5.62%로 나타나고 있다.

한便 國民 一人當年間 國防費 負擔額을 보면, 韓國의 境遇 對象期間中 6弗 乃至 13弗 水準으로서 年平均 9弗이나 北傀의 境遇는 33弗 乃至 53弗 水準으로서 年平均 43弗을 넘고 있다. 北韓 同胞들은 韓國 國民들 보다 約 5倍나 많은 國防費를 헐벗은 가운데서도 負擔해 온 셈이다. (圖表 2 參照)

〈圖表 7〉 各國 軍事費負擔 比較(1973)

個人當 GNP	\$ 100 以下	\$ 100 ~299	\$ 300 ~499	\$ 500 ~999	\$ 1000 ~1999	\$ 2000 以上	特 徵
10% 以上	越 盟 寮 보도 라 오 스	越 이 이 집 요 르	南 트 트 단	北 지 지 리 아	이 란	이스라 엘	交戰國 및 準戰時國
5—10%		中 共	말 레 지 아	臺 灣 몽 쿠 고 마	싱 가 폴 南 歐 諸 國	美 蘇 英 國 聯 國	軍盟下의 對峙國(特히 共產諸國) 核保有國
2—4.9%	印 度 인 도 네 아	泰 國 불 리 비아	韓 國 터 키	브 라 질	회 략 스 페 인	카 나 다 쿠 쿠 주	比較的 平和狀態下의 失進國, 國內不安狀態의 開發途上國
1.9% 以下		比 律 賓		멕 시 코		日 本 스 위 스	平和狀態의 諸國

9) 1966년까지의 北傀 GNP 判斷에 있어서는 美國務省, 美中央情報部, 世界銀行 그리고 日本의 大陸問題研究所의 統計가 一致하고 있으나, 그 以後의 統計에는 差異가 있다. 中央情報部, 南北經濟力比後, 第Ⅳ卷,

서울, 1973, pp. 159

10) 韓國側 判斷에 依하면, 北傀 軍費費의 GNP 比가 1972年 13.7%, 1973年 12.7%로 나타난다(圖表 11參照).

世界各國의 趨勢를 概觀할때 GNP 나 國民一人當 GNP 와 國防費 負擔率과의 사이에는 相關關係가 存在하지 않으며, 오히려 安保上의 威脅의 度와 正比例 關係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例를 들면 國民一人當 GNP 가 200 弗 未滿인 國家들 中에서도 印度支邦半島 四個國이라든가 其他 國內외의 威脅이 存在하는 國家들의 國防費 負擔率은 10%가 넘는 反面에 國民一人當 GNP 가 2,000弗이 넘는 國家들 中에서 日本이나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諸國은 2% 未滿이다.

戰時下의 國家에 있어서는 그 負擔率이 大端히 높다. 例를 들면 이스라엘의 境遇 1972年度에는 45.4%, 1973年度에는 48%線이다. 第二次 世界大戰 當時 日本은 最高 68.3%(1944年), 美國은 最高 42%(1944年)을 記錄하고 있다.¹¹⁾

一般的으로 國家 安保上의 威脅을 크게 받고 있거나 準戰時 體制下에 있는 國家들에 있어서는 平時에도 國防費 負擔率이 通常 10%線을 上廻하고 있다. 自由中國의 境遇는 對象期間中 通常 10% 內外의 水準이 維持되어 왔다.

이와같은 世界的인 趨勢와 關聯하 불때, 分明히 北傀는 準戰時 體制下에서 十餘年이라는 長期間을 통해 높은 水準의 軍事費를 擔當해 온 類例가 드문 境遇라 하겠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敵의 軍事力 增強에 依한 威脅이 增大되어간 期間에도 韓國은 經濟成長에 置重하면서 開發途上國 平均보다도 낮은 水準으로 國防費를 維持해 왔다.

絶對值에 있어서도 北傀는 韓國의 2倍 以上을 投入하여 兩者間에는 지난 10年間의 境遇 30 億弗의 隔差가 생겼으며, 軍援을 合쳐도 12 億弗의 隔差가 發生했다.

3. 國防費의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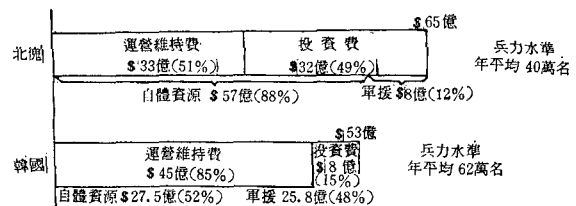
여기서 重要한 問題는 國防費의 構成이다. 一般的으로 國防費는 投資費와 運營維持費로 大別하여 考察할 수 있다. 通常 運營維持費는 現役 및 豫備役의 現存 兵員, 部隊 및 裝備의 維持, 運營과 其他 國防行政을 爲한 豫算이며 投資費는 새로히 戰力增強을 爲하여 必要로

하는 裝備 및 物資의 調達 그리고 이에 따르는 部隊의 增·創設이라든가 工事 및 不動產費와 研究開發費等이 網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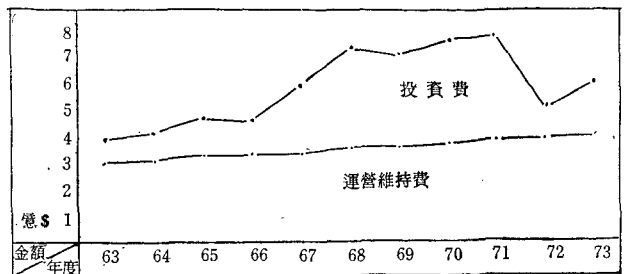
韓國의 境遇 1963年부터 72年까지의 期間 中에는 運營維持費마저도 軍援에 依存해 왔으며 裝備 및 物資費라든가 研究開發費 等の 投資費는 거의 全無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단지 工事 및 不動產費만이 若干 包含되어 있을 뿐이다.

北傀는 이미 1960年代 初부터 軍需工業에 많은 投資를 해왔으며, 小銃類와 各種 彈藥을 비롯하여 152 ㎜ 口徑까지의 火炮와 各種 艦艇 等を 國內에서 生産 調達해 왔다. 따라서 北傀軍도 韓國軍과 같은 水準의 運營維持費를 使用한다고 假定할때 다음과 같은 判斷이 可能할 것이다.¹²⁾

〈圖表 8〉 北傀 軍事費 構成推計 (72 不變價)



〈圖表 9〉 總 國防費 構成 推計(1963—1972) 1972 不變價



11) Huntington S.P., The Common Defense,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1966, p.282. USA-CDA, op. cit., p. 14.

1963 防衛年鑑, 東京, 1963, p.92.

12) 여기에 提示되는 統計는 1972年度의 北傀의 國防費中에서 兵力 및 裝備의 運營維持費를 같은해의 韓國의 實際基準值를 適用하여 推計해내고, 이를 每年 北傀의 兵力과 裝備數를 爲主로 하여 適用 推計한 推定值에 不過하다.

中央情報部: 北韓軍事費 推計判斷, 서울, 1973.

美國側 資料에 土台를 두고 判斷한다 하더라도, 北傀는 1963年부터 1972년까지의 10年間に 軍事費의 約 40%에 該當하는 24億弗 規模를 裝備 및 物資調達을 爲한 投資費에 使用한 것으로 判斷된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는 軍事費의 約 20%~30% 水準, 1967년부터는 約 50% 水準, 그리고 1972年과 1973년에는 約 30% 内外(韓國側 資料에 依하면 50%)가 投資費에 使用된 것으로 推計된다.

한편 中共과 蘇聯으로 부터 받아 들인 近 8億弗의 軍援은 모두 다 裝備導入을 爲한 投資費로 써어졌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며, 따라서 10年間の 裝備 및 物資를 爲한 總投資費는 32億弗 規模로 判斷된다.

韓國의 境遇, 自體 國防費中에서는 裝備 및 物資費는 全無했다고 보아도 過言이 아니며, 美國의 直接軍援中에서도 大部分이 運營維持費에 充當되었고 裝備 및 物資導入을 爲한 投資費에는 全體 軍援額의 約 30%에 該當하는 8億弗 程度가 投入된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南北韓의 投資費를 比較하면, 北傀가 韓國에 比해 約 4倍가 되며 絕對值로 보아 約 24億弗 程度를 더 投入한 셈이 된다. 24億弗의 隔差가 오늘날 南北韓의 有形的 軍事力의 不均衡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더구나 共產圈의 裝備는 類似한 性能의 美國製 裝備보다 $\frac{1}{2}$ 乃至 $\frac{1}{3}$ 程度 低廉價하다는 事實을 考慮한다면, 24億弗이라는 貨弊 價値로만 比較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強調되어야 할 것은 北傀의 軍事費가 相對的으로 많다는 것 못지 않게 더욱 重要한 것은 그것이 무엇에 使用되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는 北傀의 軍事戰略 및 軍事能力과 直結되는 問題라는 事實이다. 北傀의 現有 戰力을 分析하면 그 解答의 쉽게 나온다고 본다.

北傀는 莫大한 投資費를 들여 陸·海·空軍의 現代 攻擊用 機動 및 火力裝備를 強化해온 것이다. 그 中에서도 戰鬪機, 潛水艦, 誘導彈 高速艇, 戰車, 地對地 誘導彈 FROG 5/7 및 砲兵火力等 全的으로 攻擊用 裝備를 增強해온 事實은 우리의 重大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投資費가 國防費中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이스라엘의 境遇는 豫備軍爲主의 軍構造를 維持함으로써 運營維持費를 大幅 줄이고 있으며, 그 대신 裝備 및 物資를 爲한 投資費에 國防費의 85%까지를 投資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境遇도 40%線을 投入하고 있다.¹³⁾

美國, 英國, 프랑스 및 日本 등 先進國의 境遇 給與費가 차지하는 몫이 通常 50%에 가깝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物資 및 裝備를 爲한 投資費에는 大體로 25% 水準(研究開發費 除外)이 投入되고 있다.¹⁴⁾

이러한 趨勢와 關聯해 볼때, 北傀가 年平均 約 40%를 投資費에 使用했을 것이라는 判斷은 妥當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南北韓의 지난 10年間の 總國防費를 比較하면서 그 隔差는 12億弗에 相當함을 보았으나, 그것 보다도 重要한 것은 雙方間的 裝備 및 物資를 爲한 投資費 隔差가 24億弗이라는 事實이 더 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이다.

4. 小 結 論

以上에서 살펴 본 趨勢를 綜合的으로 分析해 볼때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圖表 10〉 主要國家 國防費 構成比(1972年)
(單位: %)

費目別	國別	美	英	佛	獨	日	韓國
國防費(\$億)		834.0	69.7	62.4	76.7	27.3	4.6
運營費	給與費	49.7	45.2	34.0	43.5	46.6	29.1
	維持費	17.0	12.7	19.3	25.8	23.1	57.6
	計	66.7	57.9	53.3	69.4	69.7	86.7
投資費	裝備費	22.7	24.9	24.8	17.0	25.4	3.6
	研發費	9.0	11.3	17.1	5.9	1.4	0.6
	其他	1.6	5.9	4.8	7.7	3.5	9.1
	計	33.3	42.1	46.7	30.6	30.3	13.3

根據: IISS, The Military Balance 1973-1974

13) International Armed Forces Journal, Washington, D.C., October 1973, p. 78.

14) IISS, Military Balance 1973-1974, London, 1974, p. 76.

첫째, 지난 十餘年間(1963~1973)의 우리나라의國防費는 軍事戰略的 所要에 依한 것이라기 보다는 豫算 第一主義에 依한 割當 爲主의 것이었다. 卽, 每年 GNP의 4%線과 政府 財政의 25%線 內外를 維持하는 原則이 固守된 것으로 判斷된다. 이는 北傀의 軍事 戰略的 所要에 依한 戰力增強을 爲主로한 原則과는 對照的이다.

둘째, 그럼에도 不拘하고 急激한 國家經濟의 成長으로 말미암아 國防費의 絶對値는 繼續 增大되었으며, 國防費中 國內財源이 차지하는 比率이 10%線으로 부터 90%線으로 增大되어 對美依存으로 自主國防으로의 轉換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美國의 援助는 漸次 減少되어 왔으며 特히 代充資金 支援과 直接軍援中 運營維持費 部分은 完全히 終結되었고, 直接軍援도 1970年代에 들어 急激히 減縮되었다. 이는 自體財

源의 增額을 强要하는 結果를 招來했다.

넷째, 對象期間中 自體財源에 依한 投資費는 工事費를 除外하면 全無한 形便이었으며, 直接軍援도 70% 程度가 運營維持費에 充當되었다. 이는 資源負擔 能力에 比해 過大한 軍事力을 維持해 왔음을 意味하며, 또한 軍保有 裝備의 使用期間이 길어짐에 따라 裝備維持費가 每年 上昇하여 그 負擔이 무거워진데 起因한다.

다섯째, 追加的으로 考慮될 수 있는 것은 防衛産業이 育成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國防費, 特히 投資費 增大를 爲한 刺戟을 促進할 수 없었다.

여섯째, 美國의 軍援과 美軍의 韓國 駐屯은 自己 나라의 國防을 對美依存에 安住하는 心理的 傾向을 낳았으며 따라서 自主國防을 爲한 自體負擔, 特히 投資費 負擔에 對한 刺戟을 輕減시키는 結果를 招來했다.